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양 의
금강농장 대표

'98년 새해를 맞이하여 양계인의 한사람으로서 양계가족과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난 '97년을 회상해 보면 양계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시련의 한해였다는 것은 양계인이면 누구나 실감한 사실일 것이다. WTO체제하

에 양계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양계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오면서 시작된 한해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1인당 GNP가 1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양계산물 전면 수입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우려했던 양계산물이 급증하여 양계인들을 긴장시키더니 결국 연말에 몰아닥친 금융위기와 환율폭등으로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어려움이 이어져 'IMF 경제신탁통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고 양계업계에까지 그 파급이 몰아닥쳐 사료수급 불균형이라는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환율인상과 사료수급 불균형은 사료값과 부자재의 대폭적인 상승요인을 부추겼고 양계산물의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해지면서 경기침체와 맞물려 양계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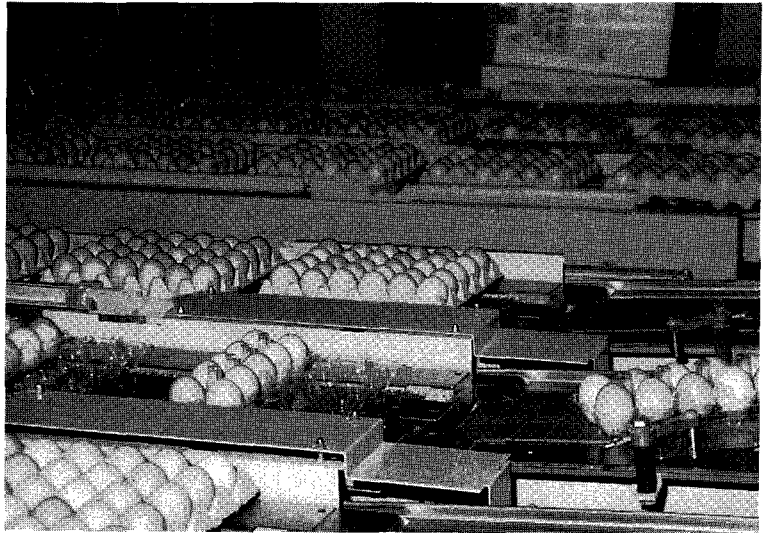
'98년 새해에는 출발부터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속에서 양계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현실을 접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시련속의 한해가 예상된다.

최근 몇 년동안 국내 채란업계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던게 사실이다. 농어촌 구조조정자금 등 정책자금과 외화리스를 받아 많은 양계인들이 사육규모를 확대하여 선진양계국들과 뒤지지 않는 시설을 하면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성장뒤에는 과도한 설비에 의한 금융부담과 자동화에 적응하지 못한 관리능력 결여에 따른 시행착오가 이어졌고 대형화된 시설에

서 생산되는 계란으로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유통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한 것이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이외에 생산비 증가와 질병피해 급증 등 자동화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힘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룩한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그 어느해 보다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한다.

2. 사료를 효과적으로 이용, 생산비 절감에 노력

1. 생산자와 상인간의 유대 강화에 노력

생산자와 상인들간의 반목은 서로간의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관행들을 볼때 가늠해 볼 수 있다.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긴밀한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유통의 흐름에 맞게 합의된 상황을 고시하여 서로의 불신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회에 후장기 제도를 없애고 직장기제도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사료공급물량 부족으로 생산비 상승과 물량부족으로 계란값 다운폭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장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정착되어 그동안 거품으로 일관해 오던 유통의 어두운 막을 걷을 수 있었으면

사료비가 이미 12월 들면서 35~45%까지 치솟아 농장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비가 계란생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양축가로서는 엄두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생산성이 낮은 계군은 과감히 도태를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계군일 경우는 계사내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온이 하락할 경우 닭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사료를 더 섭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환기관리와 급이관리를 통해 사료가 허실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개선을 해나가야 하고 계사주변에 쥐똥을 놓아 구서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사료허실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품질고급화를 통한 유통체제 확립과 소비홍보

생산비는 계속 치솟고 있으나 우리가 찾아야 할 몫을 무조건 가격을 높여 받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비 절감의 한계를 품질의 고급화, 브랜드화 등을 통한 유통체제 확립으로 타 식품들 보다 위생적이고 신선한 계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속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생적인 계란생산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계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소비위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 질병예방에 최선

아무리 고난가가 지속된다하더라도 질병피해로 인한 산란율 저하와 폐사율 증가는 농장경영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항간에는 지난해 하반기 고난가를 맞이하게 된 이유를 사료가격 상승 외에 질병피해가 심각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화장의 책임있는 병아리 공급이 우선 선결되어야 하겠고 채란인들은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예방을 통한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양계의 부산물인 계분을 수익원으로

농장에서의 가장 골칫거리가 계분처리일 것이다. 높아지는 환경의식과 규제로 계분처리

힘들어지게 되었고 계분발효시설을 설치한 농가들까지 과거보다 수익이 높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과거 화학비료에 의존하던 농가들이 유기질 비료의 장점을 인식하면서 계분 등 축분 발효분의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계분이 지력을 향상시키고 수확량을 늘리는데 가장 좋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도 발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가는 정부의 축분노처리 자금을 적절히 이용하여 농가조건에 맞는 기종을 선택, 설치하여 계분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이용해 계분을 수익원으로 환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6. 적정사육규모 유지

우리는 그동안 정책자금을 통한 전업농 육성, 양계단지 조성, 외화리스 사용 등 사육규모확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로인해 금융압박이 농장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섰고 사육규모확대로 인한 이익 창출보다는 빚더미에 올라선 것이 현 실정이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육수수 확대보다는 자기자신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사육수수를 유지하여 다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8년 한해의 양계업계는 시련과 고난의 한해로 기록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던 여러 방안들을 상기해가며 채란인들은 각자 지혜로운 판단으로 농장을 운영하여 양계산업을 다시 재건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